KIDP 초청 해외 전시

1970년대 해외 정보를 입수하거나 교류할 수 있는 통로가 협소한 상황에서 KIDP는 해외의 우수한 디자인 사례를 국내에 알리는 전시를 선보이며 국제 산업디자인의 정보교류는 물론 국내외 디자이너들 간의 교류증진을 추구하였다. 1972년 개최한 '스위스 포스터전'을 시작으로 1977년 '이태리 산업디자인전', 1979년 '영국 산업디자인전'등을 통해 국내의 디자이너들에게 세계의 디자인을 만날 기회를 제공했으며, 1994년 '서울 국제 산업디자인교류전'과 '독일 산업디자인 전시회', 1997년 '일본 우수포장디자인전'을 개최해 업계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1996년에 개최된 '가우디특별전시회'는 가우디의 예술 세계를 국내에 처음 소개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으며 2002년 개최한 '영국 정치포스터 30년전'은 제1회 코리아 국제포스터 비엔날레 개최를 기념한 특별행사로 진행되었다.

스위스 포스터전 19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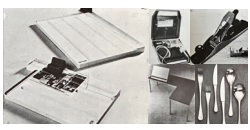
스위스 포스터의 동남아 순회 전시를 통하여 주한 스위스 대사관과 한국디자인포장센터가 공동 주최로 <스위스 포스터 전>을 개최, 일반인과 디자이너 학생들에게 소개되었다.
그들의 포스터는 상업적 PR. 이전에 순수한 예술적 표현으로 사회적인, 인도주의적인 봉사를 위한 미술품으로 되어 있었으며, 포스터디자이너들은 사회에 대한 사명감으로 포스터 디자인에 임하고 있었다.
그들의 디자인과 인쇄를 보고 국내 포스터 예술계에 직접적인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책자를 통해서만 소개 되었던 포스터들을 직접 전시하였다.

이태리 산업디자인전 1977

이태리 산업디자인전의 전시 작품 중 조명 기구·도자기·주방용품 등 출품작을 분야별로 선정해서 수록하였다.

한국 디자인 포장센터와 주한 이태리 대사관 주최로 진행 되었다.

영국산업디자인전 1979



영국 산업 디자인전(British Industrial Design Exhibition)이 한국 디자인 포장 센터와 주한영국 대사관 주최로 1979년 10월 11일부터 24일까지 한국 디자인 포장 센터 전시실에서 개최된다. 1977년 이태리 산업 디자인전에 이어 개최되는 이번 영국 산업 디자인전을 맞아 본지에서는 영국 산업 디자인전을 화보로 꾸몄다. 영국은 현재 세계 시장에서 어떤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출 고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국의 기업체들이 항상 훌륭한 디자인과 혁신을 영두에 두고 제품을 생산해 온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영국 산업 디자인전에는 주요 산업디자인 자문 업체의 다양한 디자인 작품들이 전시되는데, 이들 작품들은 영국 굴지의 디자인 전문 기구인 산업 예술가·디자이너 협회의 협의를 거쳐 선정된 작품들로서 최근 영국 디자인 협회상을 받은 작품과 영국 디자인 협회의 우수 디자인 소비 상품 색인 7천 가지 중에서 선정된 작품들이다.

독일 산업디자인 전시회 1994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KIDP : 원장 유호민)과 독일 노르드 라인 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대표 : 피터 젝)과 공동 주최하는 '독일 산업디자인 전시회'가 1994년 12월
5일(월)부터 10일(토)까지 KIDP 전시장에서 개최되었다.
독일의 최신 디자인 경향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독일 산업디자인 전시회에는 독일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 6개 업체를 비롯, 총 31개 업체의 소비재 및 내구재 70여 점이 선보였다.
특히 이 전시회에는 디자인센터가 195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디자인 국제 경선대회에서 입상한 수상작들이 대거 전시되었다. 디자인 국제 경선대회는 미적인 측면에서뿐 아니라 기능 및 품질 등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해 제정되고 있으며, 최우수 디자인 수상작에 한하여 '붉은 점(Red Dot)'을 수여,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대회 중의 하나이다.

'97 일본 우수포장 디자인전 1997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에서는 기업의 실무디자이너와 관련자들이 일본의 최신 포장디자인 경향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7년 12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KIDP 전시장에서 '97 일본우수포장디자인전'을 개최했다. 일본우수디자인포장디자인전(JPC : Japan Packaging Competition)은 지난 1961년부터 일본패키지디자인협회(JPDA)와 일본인쇄산업연합회등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어 36년 동안 매년 개최해 오는 공모전이다. 일본 통산성에서 적극 후원하고 있으며, 포장디자인 분야에서도 세계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국제적 규모의 전람회이다.
우리 나라는 지난 '90년부터 매년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주최, (주)한국폴라 주관으로 JPC전의 입상작을 엄선하여 일반에 소개하고 있다.

영국 정치포스터 30년전 2002

100여 점이 넘는 영국의 우수한 그래픽디자인 작품세계가 펼쳐졌다. KIDP는 영국문화원과 공동으로 영국의 정치포스터를 주류로 한 다양한 그래픽 작품(포스터, 배지, 전단지, 티셔츠 등) 전 '직설과 풍자의 전통-영국 정치포스터 30년 전(Up Front and Personal-Three Decades of UK Political Graphics)'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2002년 11월 20일부터 개최되는 제1회 코리아 국제 포스터 비엔날레 개최를 기념한 특별행사로, 영국의 그래픽 디자인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국내 디자이너는 물론 일반인들에게 선진국의 디자인 문화를 선보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영국 정치포스터 30년 전'은 사회 및 정치 포스터가 일상적이지 않은 국내에 신선한 문화욕구 충족의 기회가 될 뿐 아니라, 다소 무겁고 심각한 정치 사회문제를 얼마나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지, 그래픽디자인을 통해 무거운 주제가 얼마나 위트 있고 기발하게 표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문화경험의 장이 되었다.

안토니오 가우디 특별 전시회 1996

스페인의 천재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의 예술세계를 국내 처음으로 소개한 '가우디 특별 전시회'가 1996년 10월 22일(화)부터 31일(목)까지 KIDP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안토니오 가우디 특별 전시회 개최를 계기로 한·스페인간의 건축 설계와 디자인 분야의 활발한 교류 및 우리 나라 건축문화의 발전을 기대하며, 한국의 건축가와 산업디자이너들이 가우디의 청렴한 생애와 인간을 사랑하는 정신을 본받아 건축계와 산업디자인 발전의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가우디의 생애 (1852~1926)

스페인을 대표하는 예술가이며 동시에 세계적인 건축가인 안토니오 가우디. 그는 1852년 스페인의 카탈루나 지방 레우스에서 구리 세공인의 아들로 태어나 연로한 부친과 조카딸을 데리고 1926년 생을 마감할 때까지 평생을 독신으로 생활한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그가 남긴 유명한 건축물과 함께 그의 검소하고 금욕적인 생활의 교훈은 오늘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스페인을 만드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

그의 건축 세계는 주위 환경과의 조화가 뛰어나고 자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는 자연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자연으로부터 모티브를 얻어 그것을 건축물에 담았다. 구불구불한 기하학적 곡선 구조가 두드러지고 건물 하나하나가 독창적인 그의 작품은 전혀 새로운 재료나 혁명적인 구조를 적용하지도 않았으며 소재도 돌, 벽돌, 토담, 철, 나무, 도자기 파편 등 평범한 것들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대의 건축물과는 형태나 색상에서 구별된다. 그 이유는 그의 풍부한 상상력과 사물을 보는 예리한 관찰력, 그리고 순수성에서 기인한다고 하겠다. 더욱이 종교적 영감과 신앙심 역시 그의 작품 세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한편 가우디에게는 첫눈에 그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후원해 준 에우세비오 구엘이라는 사람이 있어 자신만의 독특한 건축물들을 끊임없이 창조해낼 수 있었으며, 가우디는 후원자 구엘을 위해 구엘공원, 구엘 저택, 구엘 별장 등 많은 건축물을 지었다.
안토니오 가우디는 당시만을 위한 건축이 아닌 후세에 길이 남길 수 있는 건축물을 지었다. 1882년부터 짓기 시작한 성가족 교회는 현재까지도 건축되고 있는 세계적인 건축물로 기록되고 있다. 부실공사로 다리가 무너지고 건물이 붕괴되는 우리의 실상과 비교해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이탈리아 디자인계 거장들 전시 DKfestival 2015

알렉산드로 멘디니

[LED 스탠드, 라운 아울레또]

[immagine]

잠파울로 바베또

[뉴체어]

클라우디오 벨리니

"좋은 디자인은 시와 같고 사람들에게 미소와 로맨스를 건낸다"
<알렉산드로 멘디니>

이탈리아 산업 디자인계의 대부로 평가받는 알레산드로 멘디니의 작품을 비롯해 클라우디오 벨리니와 잠파울로 바베또 등 이탈리아 디자인계의 3대 거장들의 작품이 DK 2015에 전시되었다.
알레산드로 멘디니(Alessandro Mendini)는 주방용품, 가구, 인테리어, 페인팅, 건축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했다. DK 2015에서는 직접 디자인한 알레시 제품 33개를 비롯해 세라믹 티세트, 신용카드 디자인 및 이탈리아의 가장 권위 있는 디자인 상인 '황금콤파스상' 수상작 '라운 아울레또 스탠드'가 전시되었다.

밀라노 출신의 클라우디오 벨리니(Claudio Bellini)는 건축, 전시, 제품 및 가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인 건축가 겸 디자이너로 자신의 패션 브랜드인 라라 벨리니(Lara Bellini)의 가방과, 지갑 신제품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건축적 구조를 담은 보석 디자인으로 명성을 얻은 잠파울로 바베또(Giampaolo Babetto)는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3개의 작품(반지, 목걸이, 브로치)을 소개했다.

루이지 꼴라니전 DKfestival 2019

"인간은 그저 자연을 관찰만 하면 된다. 그곳에서 우리는 완벽한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루이지 꼴라니>**

1928년 생으로 2019년 91세를 맞이했던 루이지 꼴라니가 2019년 9월 16일 독일 남서부의 카를스루에(Karlsruhe)에서 별세했다. 디자인코리아 패스티벌 2019는 그의 유작전을 준비하여 2019년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루이지 꼴라니 특별관'이 마련되었다.

루이지 꼴라니는 디자이너이기 이전에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특히 자연의 생물인 곤충, 물고기, 새, 나무 등이 지닌 고유한 형태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그는 각각의 생존전략과도 직결되는 생물의 형태들이 얼마나 기능적이고 아름다운지 깨닫게 되었고, 이 깨달음에 대한 열정을 자신의 디자인 작업에 다방면으로 접목하기 시작했다. 'Bio Design(바이오 디자인)'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태어났다. 바이오 디자인은 대부분 자연의 형태 90%, 루이지 꼴라니의 해석 10%로 완성된다. 루이지 꼴라니는 그 자체로 이미 완벽한 자연의 형태이기에 인간의 해석은 최소한으로 넣기를 원했다. 이를 토대로 완성된 루이지 꼴라니의 작품은 수많은 분야에 걸쳐 있다. 개구리의 형태에서 영감을 받은 오토바이, 코끼리의 형태를 본뜬 저금통, 새의 형태를 닮은 비행기 등, 루이꼴라니가 자신만의 철학을 펼친 디자인은 볼펜부터 비행기까지 방대한 영역에 달한다.

Colani
LUIGI COLANI